

"당신의 자녀는 행복합니까?": 영재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재검토

진석연 (건국대)

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. 자신의 하루하루 일과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항상 인식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한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며, 그 필요가 무엇이든 그것이 채워질 때,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갈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. 영재를 포함한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도 인간이다. 그들의 모든 일상사들도 그들 고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며, 결국 그들 나름의 행복 추구의 활동이다.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으로서 '행복'을 이야기했을 때, 그 행복(그리스어 'eudaimonia')은 바로 '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'을 의미했다.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행복을 논할 수 있지만,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교육을 다루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.

영재교육은 바로 고유한 필요를 가진 영재아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어야 한다. 이러한 기본 철학 아래 계획되고 수행되는 영재교육은 영재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근본 임무로 삼게 될 것이다. 본 연구발표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, 향후 영재교육 연구와 실제에의 시사점을 논한다.